

<두홍전> 연구

김진규*

차 례

- | | |
|-------------|---|
| I. 머리말 | 2. 영웅담과 이산담의 합일 구조 |
| II. 서지적 사항 | IV. 의미지향: 倫紀실천을 통한 가문회복과
이상적 국가이념 구현 |
| III. 구조적 성격 | V. 맺음말 |
| 1. 시퀀스 분석 | |

I. 머리말

고소설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의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부분에서 큰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구자 혹은 독자의 손길을 기다리는 작품이 많이 남아 있다. 새로운 자료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선학들의 노력에 의해 발굴·영인된 작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연구자의 편향된 의식을 바꾸는 데 일조할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생각 끝에 필자에게 <두홍전>이 눈길을 끌었다. 필자의 과묵한 탓인지 이 작품에 대한 단독 연구는 아직 찾지 못했다. 다만 고소설 목록에 제목¹⁾

* 동의대학교 강사

1) 소재영, 『고소설통론』, 이우출판사, 198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고소설목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우쾌제, 『고소설 명칭 및 총량의 통계적 고찰』,

이 발견되며, 줄거리²⁾만 소개되었을 뿐이다. 이에 본고³⁾는 기왕에 논의되지 않은 작품이기에 첫째, 서지적 사항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둘째, 작품 전문을 시퀀스별로 분석하여 그 구조적 성격을 알아보고, 셋째, 의미지향을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하여 살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과정은 이 작품의 소설적 성격을 규명하는데 주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의 계기를 통해 이 작품이 우리 고소설사에 자리매김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II. 서지적 사항

<두홍전>은 국문 필사본 소설로 김동욱 소장본이던 것이 현재는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한적 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다. 청구기호는 853.5 두15이며, 등록번호는 359322이다. 1책, 총 135면, 각면 10행, 각행 18~23자 중서, 정자체와 흘림체가 섞여 필사되어 있다. 이것은 또한 총 150면, 각면8~9행, 각행 15~23자 중서, 정자체와 흘림체로 영인⁴⁾되어 있다. 이 작품의 원제는 <두홍전 나라>인데, 작품이 시작되는 우측 중앙에 본문 내용의 글자 크기인 흘림체로 적혀 있다. 필자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본과 영인본의 내용은 가감없이 같은

『고소설의 저작과 전파』, 아세아문화사, 1995(재판);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1, 집문당, 1999 등이다.

- 2) 조희웅, 『고전소설 줄거리집성』 1, 집문당, 2002, 302~303쪽.
- 3) 이 논문은 한국문학회 동계 전국학술발표대회(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교수회관 동시통역실, 2003. 12.13.) 때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때 줄고를 꼼꼼히 읽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병권 교수님께 감사 드린다.
- 4) 김동욱 소장본, 『필사본 고소설 자료 총서』 7, 보경문화사, 1991, 427~576쪽. 여기에 각면이 8행으로 된 부분은 435, 437, 454, 483, 488, 559, 569, 576쪽 등 8쪽 분량 뿐이고 거의 9행이다. 각 행의 글자수도 19~21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또한 흘림체는 약 13면 분량으로 전체 11.54%에 불과하다. 이를테면 427쪽 1행, 431쪽 2~6행, 442쪽 2~4행, 444쪽 6~9행, 445쪽 1~2행, 449쪽 1행, 460쪽 7~9행, 461쪽 1행, 462쪽 1~9행, 463쪽 1~9행, 464쪽 1~5행, 465쪽 1~6행, 466쪽 8~9행, 467쪽 1~3행, 468쪽 9행, 469쪽 1행, 473쪽 9행, 474쪽 1~4행, 478쪽 5행, 479쪽 5~6행, 493쪽 7~8행, 525쪽 5~8행, 526쪽 1~9행, 527쪽 1~3행, 534쪽 3~6행, 541쪽 7~9행, 542쪽 1~3행, 548쪽 8~9행, 549쪽 1~2행, 556쪽 1~9행, 557쪽 1~4행, 563쪽 2행, 576쪽 3~8행 등이 그것이다.

것으로 판명되어 텍스트는 영인본⁵⁾으로 하였다.

한편, <두홍전> 앞에 <頭紅傳>⁶⁾이 영인되어 있으나, 원본엔 <頭紅傳>이란 제목이 없다. 그 내용도 현종의 성덕을 기리면서 한편으로는 지방 탐관오리들의 횡포(삼정문란 중 특히 환곡)에 시달리는 경남 거창 읍민들의 한맺힌 사연을 절절히 표현한 가사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두홍전>과는 별개의 작품이다. 다만 이 두 작품이 같은 정자체와 흘림체를 섞어 쓴 점, 경상도 방언의 빈번한 사용, 각면 8~9행, 각행 14~22자의 사용, <頭紅傳>이 끝나는 같은 한지 원편에 <두홍전>이 바로 시작되는 점 등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같은 필사자로 여겨진다. 따라서 <頭紅傳>이라는 제목은 영인하면서 써 넣은 듯하며, 굳이 쓴다면 <두홍전>이 시작되는 426쪽 앞에 있어야 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때 <두홍전>은 先本이 발견되지 않는 한 김동욱본이 유일본인 셈이다.

<두홍전>의 필사 연도와 필사자는 다음의 후기를 통해 상고할 수 있다.

임인 시월 이십 오일 등초 초이라. (...) 소차칠, 홍식일 필⁷⁾

먼저, 필사 연도로 나와 있는 壬寅年은 ‘... 1782년, 1842년, 1902년...’ 등이 해당된다. 앞서 이 작품이 <頭紅傳>의 필사자와 동일인이라고 추정하였는데, <頭紅傳>의 작품 내적 시간과 비교하면 필사 연도의 근사값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원술네라, 갑오연의 동지월이 원술네라. 여상고비 하난비회 심산궁곡 일반이라. 하날갓든 더왕더비 일월갓든 자성전하 티임의 덕이신가 밍모의 훈계신가 슈렴섭경 하신후의 팔역이 안연하다. 동광삼칠 신축연의 우니성상 즉위하사 춘추방성 시오세의 한소제의 총명이라. 주성왕의 어린님군 팔빅연 기업이라. 우리전하 어리시되 팔천세나 바리니라. 작연도 풍연이요, 금연도

-
- 5) 이하 인용은 영인본 쪽수를 밝히되,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는 필자가 붙인 것이다.
 - 6) 김동욱, 위의 책, 391~426쪽. 제목 <頭紅傳>은 한 면에 걸쳐 좌측 상단에 제시되어 있고, 총34면(원본은 32면)으로 영인되어 있다. 이하 인용은 편의상 <頭紅傳>의 제목을 붙이고, 영인본의 쪽수를 밝히되,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는 필자의 것이다.
 - 7) <두홍전>, 576쪽.

풍연이라.⁸⁾

② 명연가고 우명연의면 철연폐단이야 본읍지형 둘러보니 삼가섭천 아이 지레 사읍중의 처하여서 민연결상 경찰지 다음은 십삼양을 민간의 출지하되 본읍은 십오륙양을 열연의 가렴하니⁹⁾

③ 기벽후 나린사적 역 〃 히 드러보소. (...) 천지까지 디하되 한번기벽 이 컷나니 (...) 식축(신축-필자)팔월 추항시에 사익서원 제물수를 나라의 회감 하사¹⁰⁾

위의 예문 ①에서 ‘갑오년 동지월이 원수다’하는 대목은 순조의 昇遐(1834.11)를 가리킨다. 그리고 ‘수렴청정하신 후의 8년, 신축년 즉위, 십 오세, 우리 전하 어리다’ 등의 역사적 상황은 현종 7년(1841년)이 되므로 필사의 상한 선을 1842년으로 잡을 수 있다. 그러나 ②에서 ‘명년, 우명년’으로 보아 이미 1842년을 넘어서는 뿐만 아니라, 바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내면화시켜 가사로 노래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③에서 ‘기벽’[開闢]은 1860년 이후 일어난 동학사상, 신축년이 1901년을 가리킨다고 볼 때 필사 연도를 1902년으로 잡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다음, 필사자는 ‘소차칠, 홍식일’이란 이름으로 보아 남성임을 짐작할 수 있고, 고사와 한문투의 문장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구사한 것으로 보아 중인 계급 이상의 식자층이면서 고소설에 조예가 깊은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다.¹¹⁾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정확히 어떠한 사람인지는 더 고증해야 할 사항이고, 다만 이 작품에 경상도 방언¹²⁾을 많이 쓴 점으로 보아 필사자는 경상도 출신의 인물

8) <頭紅傳>, 396~397쪽.

9) <頭紅傳>, 406~407쪽.

10) <頭紅傳>, 398, 404, 422쪽.

11) 다만 <頭紅傳> 원본 말미에 ‘權氏 号 四物, 主 權生員’이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이는 필사자의 글씨라기보다는 이후 소장자가 가필한 것으로 보인다.

12) 경상도 방언은 ‘ㄱ, ㅈ, ㅊ, ㅌ, ㅍ, ㅍ’의 6모음 체계여서 ‘으’와 ‘어’, ‘에’와 ‘애’의 구별이 없고, ‘의, 으’가 ‘이’로 발음된다. 또한 의문 종결어미도 ‘~고, ~가, ~노, ~나’가 많이 쓰이며, ‘ㄱ’이 ‘ㄷ’, ‘ㅎ’이 ‘ㅅ’으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난다. <두홍전>에 쓰인 경상도 방언은 <頭紅傳>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결에→젓티(431쪽), 기달이소서→지달이소서(432쪽), 길을→질을(433쪽), 증손→징손(436쪽), 웃고→윳고(438쪽), 의논→이논(446쪽), 슬픔이→실픔미, 없을손가→업실손가(457쪽), 힘→심(461쪽), 무슨→무신(469쪽), 대경실색→디경실식(480쪽), 경개→갱기(483쪽), 구경→귀갱(484쪽), 깊은→집푼(485쪽), 측은→

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필사자와 이 작품의 원작자와는 동일인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등초 초이라’에서 보듯 이 작품은 先本이 따로 있을 듯하며, 필사자가 원본을 그대로 등초했다기보다는 원본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抄’하되, 자신의 독서력을 바탕으로 다소 변개한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III. 구조적 성격

1. 시퀀스 분석

작품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작품 구조의 내재적 법칙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품의 전문을 시퀀스(sequence)별로 나누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시퀀스란 연대 관계로 결합되어 있는 핵단위¹³⁾들의 논리적 연속이며, 그 관계들 가운데 하나가 연대적인 前項을 갖지 못한 경우에는 열리게 되고, 그 관계들 가운데 다른 하나가 어떤 논리적 결과를 갖지 못한 경우에는 닫힌다.¹⁴⁾ 다만 본고는 먼저, 바르트의 기능, 행위, 서술 층위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작품 전체 구성을 ‘발단-전개-결말’로 나누고, 시퀀스 중 장면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시간(스토리 시간, 서술 시간)¹⁵⁾·공간·행위

칙은(486쪽), 경군→갱군(487쪽), 쓰고→씨고(503쪽), 쓸데없다→썰디없다, 측량→척양(515쪽), 옷을→오실(518쪽), 확실히→확실리(525쪽), 애미→에미(537쪽), 생각하였느냐→싱각하여노(543쪽) 등이다. 한편 <頭紅傳>의 작품 배경은 경남 거창이기 때문에 필사자도 이 지방에 거주한 사람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웃고’(笑)의 음가는 주로 [uj]로 나타나고 [wi]도 실현되는데, 이 말은 경북 성주에서 쓰인 방언으로 알려져(백두현, 『영남 문헌어의 음운사 연구』, 국어학회, 1992, 178쪽 주7) 참조) 필사자는 경북에서도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추정된다.

- 13) 채트먼은 핵단위를 ‘중핵(kernels)’이라 명명한다. 곧 서사적 사건들은 연관의 논리뿐 아니라 위계의 논리를 지니고, 사건들에 취해진 방향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서사적인 순간들을 말한다. 따라서 중핵들이 생략되면 서사적 논리가 파괴되는 것이다. 시모어 채트먼(김경수 옮김),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민음사, 1999, 61~62쪽.
- 14) 롤랑 바르트, 『이야기의 구조적분석 입문』, 『구조주의와 문학비평』(김치수 편저), 홍성사, 1981(2쇄), 114쪽.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다음, 시퀀스간의 인과적 계기성을 중심으로 서사단락화 시켜 각 단락의 특징 및 연관 관계를 알아볼 것이다. 다소 장황하지만 작품을 미시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하 S-N : 시퀀스 번호, * : 추정 시간, ◦ 같은 서사축이나 장면 전환, ∙ : 서사축 전환)

플롯	S-N	단락 전개	배 경			행 위
			시 간		공 간	
			스토리 시간	서술 시간		
I 발 단	1-1	가문 및 가족 소개 모함 유배 이별	가정년 (*1549년)	약6.9면 (약6분 54초)	명 황성 장안	청렴강직한 승상 두경열의 뛰어난 가문 내력과 이씨부인의 가문, 8세(문매상 7세입)된 아들 흥을 소개함.
	1-2					석승이 篡逆할 뜻으로 한림학사 양소회를 사주하여 두경열을 참소함. 황제가 두경열을 삭탈관직하고 황옥에 가둠.
	1-3					두경열이 황옥에 갇히면서 처자식과 이별할 때, 조선 행화로 피난하라 하고, 인젠가는 흥이 자신의 한을 풀어 줄 것이라 믿음. 흥은 부친의 원을 씻어드리고 싶지만 육지부지라며 한탄함.
	1-4					두경열이 백노섬에 종신 안치되고 석승은 만조백관을 지휘하는 권세를 누림.

- 15) 스토리 시간은 이야기-사건 자체가 지속되는 시간이고, 서술 시간은 서사물을 해독하는 데 걸리는 시간(담화시간 혹은 可讀時間)을 가리킨다. 시모어 채트먼, 앞의 책, 75~93쪽 참조. 다만 본고는 스토리 시간과 서술 시간을 쉐로미드 리몬 케년의 표준인 속도(pace) 곧, '감속 [장면]과 가속 [요약·압축]'을 주로 차용할 것이다. 이를테면 한 사건과 또다른 사건, 혹은 서사축간의 시간을 비교한 상대적 속도를 말한다. 가속과 감속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흔히 중요성이나 중심성을 지시하는 것으로 독자들에게 평가되는데, 통상 중요한 사건이나 대화는 상세하게 제시되고(즉, 감속되고) 덜 중요한 것은 압축된다(가속된다). 쉐로미드 리몬 케년, 최상규 역, 『소설의 시학』, 문학과지성사, 1996(7쇄), 81~88쪽 참조.

II 전개 1	2-1	성장 고난 혼인	" (1년후)	약24.1년 (약24분 6초)	장안	8세된 홍은 얼굴이 관옥 같고 문필이 여유하여 장안이 놀남.
	2-2		" →반 년		장안→ 강호 산동	석승의 모해가 두려워 홍과 이씨부인은 유리결식함. 이들은 강호 산동에 이르러 초막을 사서 서로 의지하며 지냄.
	2-3		"		강호 산동	이 동네에 구대 진사 집안이요, 승상 위연의 증손인 위진사가 벼슬에 뜻이 없어 초야에 농업을 일삼고 세월을 보냄.
	2-4		" 이후		산동 초막	홍은 주경야독하고, 이씨부인은 품을 팔면서 근근이 살아감.
	2-5		" 수월		" 위진사택	천렵 다녀오던 위진사가 나무지고 가던 홍을 만나 내일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함.
	2-6		" 이후		위진사택	위진사가 그의 부인에게 영웅호걸 같은 홍을 만난 얘기를 하고, 자신은 그런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
	2-7	"	위진사택	홍이 위진사 집에 찾아오자, 위진사는 두홍의 뛰어난 형용과 명필, 효성에 감동함. 길흉을 점칠 수 있는 위진사 부인 또한 홍의 영웅상에 탄복한 후, 홍 모자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있자고 위진사에게 말함.		
	2-8	"	초막, 위진사택	홍이 집에 돌아와 위진사택에 있었던 일을 말함. 이씨부인도 위진사 부인의 초대를 받고 그녀와 담화를 나눈 뒤 같이 있게 됨. 이씨부인은 이제 일신은 평안하지만, 백노섬 소식을 몰라 눈물로 세월을 보냄.		
	2-9	이러구러 (6년 후)	산동 두홍집	14세 된 홍이 더욱 준수하고 문필이 유여하자, 위진사택은 그를 사위(위진사의 15세 된 딸 또한 여중 군자)로 삼음. 홍은 혼인하여 덕분에 잘 지내나 백노섬 일로 걱정함.		
	2-10	1년이 지낸후→ 열달→ 세 달			홍은 아들 유애를 낳은 뒤 세 달 만에 부친의 존망을 알기 위해 모, 처, 빙부, 빙모에게 이별을 고했.	
2-11	부친 찾기 (탐색)	여러 날	남대해 →대강 →동정호 · 무산과 이웃 · 소상강 · 평사 →수중 계 등	부친을 찾아 백노섬으로 가던 홍은 중국의 명승지를 두루 거치며 방황함. 홍이 수중계의 처첩 갈등을 해결해 주자, 청룡녀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음. (남해 용자의 첩인 서해 용녀(백룡)가 홍에게 삼척 검을 주며 본처인 동해 용왕의 장녀 청룡을 죽여달라고 했지만, 오히려 백룡을 죽여 그녀로부터 환약 3개와 수정검을 받음.)		

II 전개 1	2-12	고난 구출 재회	여러 날	약12.5 면 (약12분 30초)	대해→ 백노섬	홍은 백노섬이 인간의 힘으론 갈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통곡함. 그러던 중 청룡 부인이 보낸 청의동자로부터 길을 인도받아 백노섬에 가서 병환이 극중한 부친을 만남.	
	2-13		" 직후		백노섬	청룡부인이 신녀를 보내 위중한 두경열을 환약으로 살려서 부자상봉케 하고, 이어 홍이 가지고 있는 환약 3개를 더 써서 낮게 한 뒤, 축귀문을 외고 사라짐.	
	2-14	불완 전 행복	"	약1.4면 (약1분 24초)	"	홍이 부와 상봉한 뒤, 그 동안의 일을 부친께 고함.	
	•2- 15		각설 여러 해	약20.5면 (약20분 30초)	장안	석승이 여러 해 병마도총독으로 권세를 누림.	
	2-16		다시 세월 보냄			석승은 두홍(학의 붉은 머리)을 조심하라는 자신의 꿈(학이 만신을 쪼음)에 대한 장도사의 해몽을 듣고, 산동땅 출신 병부시랑 호홍을 시켜 홍 모자를 잡아오라 함. 이 때 말처 군사가 홍 모자를 살리기 위해 먼저 산동으로 옴.	
	2-17		" 이후		산동 두부인 집	말처 군사가 이씨부인과 위씨부인에게 와 석승이 매복해 있으니 급히 피하라고 한 후 감.	
	2-18		"		산동 대강	이씨부인과 위씨부인은 석승의 환을 피할 수 없어 유애를 강둑에 버린 뒤, 하늘을 원망·통곡하며 강에 투신함.	
	2-19		피화 고난		"	대강→ 위국	강에 투신한 이씨부인과 위씨부인은 용국(수궁) 청룡 부인이 보낸 백발노인(거북)의 도움으로 구조된 뒤, 절에 가 때를 기다리라는 指教를 받음. (그 전 위씨 부인의 모친이 유애의 상이 삼삭 후에 이별수라 하여 나삼한 별로 생일일시 수를 놓은 저고리를 입혀 두었다고 함.)
	2-20				"	양국 황룡사	이씨부인과 위씨부인은 절을 찾아가던 중, 절승에 자신의 심회를 대비시키며 한탄하다가 황룡사 스님들의 환대를 받고, 이후 한철을 보내기로 함.
	2-21				이튿날	황룡사	이씨부인과 위씨부인은 삭발위승하여 각각 시승, 상자 되어 이름을 범희, 월애라함.
	2-22				이 때	산동 위진사댁	위진사는 사부인과 딸이 경군을 피해 도망간 줄 알고, 시비 도섬에게 유애를 업고 멀리 도망가라고 하니, 도섬은 배를 타고 떠남.

II 전개 1	2-23		차설 이 때	약20.5면 (약20분 30초)	두부인집 →위진사 택→황성	경군이 두 부인집, 위진사집에 가서 두홍 등 을 찾지 못하고 위진사 말(두홍은 유리한 지 오래고, 이씨부인과 위씨부인은 죽었다.)대 로 석승에게 보고하자, 석승은 두홍을 어찌 잡을 것이냐며 대노함.
	2-24	피화 고난	각설 이때 이후		강→촌	도섭은 자식이 없던 절강땅 이재춘이란 상 선 선주에게 은자 백 냥에 유애를 강제로 빼 앗기고 일성통곡하다가 촌에 들어가 농업을 하며 세월을 보냄.
	2-25		이 때		절강땅	이재춘이 유애를 데리고 와 동리 사람들에 게 강남땅에 가 취쳐하여 아이를 낳았다고 말하고는 부인에게 곱게 키우라고 함.
II 전개 1	2-26	석 승 의 환	이 때 이후	약9.3면 (약9분 18초)	황성 장안	석승이 7~8년 병권을 쥐고 있던 중, 찬역할 뜻으로 시랑 양소희, 상서 최윤, 총독 호홍 을 끌여들여 모월모일 구체적인 모사를 하 기로 약속함.
	2-27		이 때		황성 황극전	지금 역적이 생겼으나 성덕이 거룩한 황제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다 함.
	2-28		일일은	황성 황극전	석승은 조회에 참석하지 않고 호홍, 최윤 등 과 합세하여 거사를 일으켜 황극전에 들어 가 도부수를 시켜 옥새를 요구함. 충신은 저 항하고, 장안 백성들은 분기를 참지 못해 항 거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노인들은 통곡하면 서 피란을 떠남.	
	2-29	복수 입공	각설 세월을 보냄	약11.2면 (약11분 12초)	백노섬	두승상은 장안 소식이 끊긴 것은 석승이 찬 역한 것 때문이라고 여기며 자탄하던 중, 홍 에게 국가의 불행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말함. 그러자 홍은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함.
	2-30		" 이후		백노섬 물가	홍이 울적한 마음으로 물가에 나와 배회하 던 중, 청룡부인이 나타나 석승이 찬역을 했 으니 청포 갑옷과 황금 투구, 수궁 제일의 용마를 주며(그 전에 준 칼에 대해서도 언 급), '大明을 회복하고 이름을 천추에 유전하 라'고 함. 그리고는 처자 등은 무양하고 자 식은 성명이 바뀔 것이며, 정성을 다하면 만 날 수 있으리라고 말한 뒤 사라짐.
	2-31		"		백노섬	홍이 부친에게 청룡부인이 나타나 앞일을 지교한 것을 말하자, 부친은 누대로부터 입 은 국운을 값으라고 함. 이어 홍이 황성으로 가기 위해 아버지 하직함.

II 전개 1	2-32	복수 입공	" →명일	약11.2면 (약11분 12초)	백노섬→ 황성 *금국	홍이 황금 투구를 쓰고 용표윤갑을 입고 수정 검을 들고 황성에 득달하여 찬역한 도부수, 호홍, 양소희, 최운 등을 목베고, 석승을 사로 잡아 철망에 매단 뒤 장안 백성들을 위로함.
	2-33		이 때		성 밖→ 장안→ 황극전	황제는 석승의 찬역을 물리친 홍을 극찬하 고, 황극전으로 돌아와 석승을 능지처참할 뿐아니라, 그의 구족은 멸하고 치는 중신 정 배케 하라고 함. 반면 두승상은 해배하고, 홍에게는 이부상서 겸 충열공에 봉함.
	2-34	불완 전한 행복	이 때	약2.8면 (약2분 48초)	황성→ 백노섬→ 장안→ 황극전	황제는 두승상의 원찬을 후회하고, 대연을 배설함. 또 두승상에게 찬하를 반분하자고 제의하나 두승상은 역적 하나 잡은 것을 어 찌 공이 되냐며 극구 사양함. 이후 홍은 연 왕으로, 두승상은 연국의 태상왕으로 봉하 니, 국태민안했지만 이산된 가족을 생각하며 수심으로 지냄.
II 전개 2	2-35	성장 고난	각설 이 때	약5.5면 (약5분3 0초)	절강땅	이재춘이 유애를 곁에 기르고 학업을 가르 치니 그 재주가 과인함.
	2-36		세월이 여류하여			유애는 십오 세가 되자, 이름을 우연이라 함. 양부모가 일시에 득병하자 효성을 다했 지만 차도가 없음. 양부모는 우연을 기르게 된 사연을 밝히고, 출생의 비밀을 알 수 있 는 나삼옷을 주며 동시에 죽음.
	2-37		"			우연이 삼년거상을 한 뒤, 자신의 신세를 한 탄하던 중, 출생의 비밀을 알기 위해 사해 팔방을 찾아 다니기로 함.
	2-38	고난 구출 정혼	이 때 우연의 나이 십 팔세라	약11면 (약11분)	절강땅	십팔 세가 된 우연은 기골이 준수하고 문필 이 유여함. 그리고 우연은 윤기(자신의 부모 찾기)를 찾기 위해 의종형 이운성에게 가장 인 기물, 노비, 전장 등을 다 맡기고 나삼만 행장에 간수하고 떠남.
	2-39		이때~ 이러구러		사해팔방 →황성	우연이 사해팔방 경치를 만나도 마음이 처 량함은 물론 인가 많은 곳에서 모친 등을 수 소문하지만 찾을 길이 막막하여 결국 황성 으로 감.
	2-40		이 때		황성	황성에 간 우연이 과거 보러 장중에 들어감. 이부서리 강위대 딸(17세, 덕행이 뛰어난.)의 꿈에 '한 소년이 황룡이 되어 자신의 허리를 물고 내당 침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꾸고 난 뒤 평생 대몽이라 깨닫고 부친에게 문 밖에 주저하는 사람이 있으면 과거 보게 해 달라 고 간청함.
	2-41		이 때			

II 전개 2	2-42	고난 구출 정훈	" 이후	약11면 (약11분)	장안	우연이 장안에 들어 왔지만, 과장에 쓸 기구 없어 강위대집 앞에 머물다 강위대로부터 대접을 받음. 이후 잠깐 조는 사이 '한 남자가 백학이 되어 입에 계화 일지를 물고 날아와 이것을 우연의 머리에 꽂고 넘노는' 꿈을 꿈. 우연이 강위대 딸의 꿈과 우합한 것을 피이히 여기고 과장으로 들어감.
	2-43		"		황극전	우연이 과거장에 들어가 장원급제하니, 황제가 칭찬하며 신방급제 및 한림학사를 제수함.
	2-44		" ~수배 지낸 후		강위대 집	운기를 찾지 못한 우연은 마음을 억제하지 못함. 우연은 강위대 딸의 꿈과 우합해 서로 천정인연이라 여기지만 강위대의 딸에게 벼슬이 높기를 기다려 달라고 함. 강위대의 딸은 우연에게 국은을 극진히 하여 이름을 빛내라고 함.
	2-45		그 날		황성	우연이 국사를 잘 도와 황제가 이부시랑을 제수함.
	2-46	고난	이 때	약12면 (약12분)	황성 황극전	북방 도적이 위국 구주를 침략하자, 천문도사가 빨리 명장을 보내 구하라 하는 가운데, 좌승상 노경운이 우연을 원수로 보내자 하니 황제 또한 윤택함. 우연이 국가에 충성함은 물론, 타국 왕래하면서 부모 소식 알까 하여 장수를 찾아 더욱 분발함.
	2-47		이 때		연국	연왕이 이씨부인과 처자 소식을 몰라 자탄하던 중, 청룡부인이 들어와 위국 병란에 우연이 대원수로 출정하니 그에게 갑옷, 갑주, 칼, 말을 주고(갑옷, 갑주, 칼은 벽파강에 넣고, 말은 타고 오라고 함.) 용법을 가르쳐 보내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지교한 뒤 사라짐. (청룡부인이 완전 이별을 고하며 천기 누설 금지를 말함.)
	2-48		" 이후		연국 → 황성 황상전	연왕은 청룡미인이 지교한 것을 태상왕께 고해 윤택을 받아냄. 연왕은 우연에게 후일에 갑옷, 갑주, 칼은 벽파강에 넣고, 말은 타고 오면서 행여 우리집에 관해 묻는 사람이 있으면 연국으로 보내 달라고 당부함. 우연이 황상전에 돌아와 황제와도 하직함.

II 전개 2	2-49	구출 입공	이 때, 등극하신 지 오래되어	연국	연왕이 ‘모친은 산중에 있고, 자식은 성명이 바뀌었다.’는 청룡미인의 말을 떠올리며, 산동 위진사 덕에 예관 등을 보내 그들을 찾음. 예관은 위진사로부터 (연왕의) 모와 처는 죽고, 아들은 멀리 도망갔다는 소식만 들음.	
	2-50		각설 이 때 이후		위국 무성땅	우연이 위국 무성땅에 이르러 호장 두길의 십만 대병과 맞서 싸움. 먼저 두 장수의 목을 수정검으로 순식간에 베자, 천산도사가 사해 용왕의 정신이라며 항복할 것을 호장에게 권함. 호장이 항복·사죄하니, 우연은 치죄한 후 그들을 돌려 보냄.
	2-51		"		위국	우연이 호진의 항서를 봉해 장문하고 길을 떠날 때, 위왕이 십 리 밖에 나와 작별함.
	2-52	고난	이때 ~ 세월을 보내니 두부인(5 6세) 위씨부인 (34세)	연국	두승상 부인이 꿈(법당 뒤 나무 위에서 까마귀가 울고 있으니, 다른 까마귀가 사문으로 들어와 무엇을 먹인 뒤 서로 좋아하는 내용)을 꾸고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차에, 우연 대원수가 큰 공을 세우고 황성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가 원정하기를 함. 두 부인이 석양산에 이르러 우연을 보자 선연한 두홍의 상이라 유애라고 여기지만, 바로 말을 못하던 중, 우연은 갑자기 정신이 어지럽고 용마마져 가지 않아 의혹을 가짐. 두 부인이 그 간의 사정이 쓰인 원정을 우연에게 바쳤지만, 우연은 자신의 모친임을 깨닫지 못하고, 다만 모친에 대한 그리움으로 슬픔을 감추지 못함. 이어 연왕의 부탁한 말이 생각나 두 부인을 연국으로 치송함.	
	2-53		이 때		소흥부	도섬이 소흥부에서 농업하고 지내던 중, 연국 왕비 오신다는 말을 듣고 구경 나왔다가 만나 그간의 일을 말함. 서로 대경통곡한 뒤 연국 왕비는 도섬을 데리고 연국으로 옴.
	2-54	기타	이 때	연국	산동에 양위 왕비 모시러 갔던 예관이 돌아와 두 양위는 죽고, 아기는 시비 도섬이 데리고 멀리 도망갔다는 말을 하자, 궁중엔 곡성이 낭자함.	
	2-55	입공	각설 세월을 보내니 (삭발위 승한 지 18년)	연국	우연이 황상께 연왕의 모친과 처를 연국으로 치송한다는 장계를 올리고, 연왕전에도 상서함. 결국 연왕은 모와 처를 만나니, 곡성이 낭자함. 서로 그 간의 지내온 일을 이야기함. 이후 풍악으로 세월을 보내니 유애의 존망을 몰라 종종 슬퍼함.	

II 전개 2	2-56	입공	각설 여러날 만에	약5.5면 (약5분 30초)	오림땅→ 황성 황상전	우연이 오림땅에 이르러 남해 벽파강에 갑옷, 갑주, 수정검을 수중에 넣고, 공을 세우고 황상전에 돌아오니 황제가 이부상서를 제수함.
	2-57		이 때		황성 황상전	황제가 부마(공주 26세, 부덕이 뛰어난)를 간택할 때 우연이 마땅하다 하니, 예관이 이를 이부상서에게 말함. 이부상서는 주혼이 없다며 사양함. 황제 이미 간택했다면서 연왕을 불러 주혼하라고 하니, 연왕이 그를 연국으로 불러와 자식같이 범절을 행함.
II 전개 2	2-58	혼인 · 완전한 행복	" 이후	약10.8 면 (약10분 48초)	황성 황상전→ 연국	연왕이 납폐일 때 우연에게 세전지물이나 부모의 보물이 있느냐 하자, 우연은 그런 것은 없고 다만 나삼 저고리가 있다며 양부모의 유언과 함께 그것을 보임. 순간 연왕 가족은 그가 잃어버린 혈육임을 깨닫고 서로 붙들고 통곡함. [신물 및 증언 통해 상고-우연의 양부모 유언 및 나삼 저고리와 글 내용(갑자 3.29), 유애 등의 붉은 점, 그 간의 이력(우연의 모친, 조모, 시비 도섭 등)]
	2-59				"	연국→ 황성 황화궁→ 장안→ 연국 태월각
III 결말	3-1	보은 취첩 완전한 행복	이 때 이 후	약2.2면 (약2분1 2초)	연국	가족 이산 중 은혜 입었던 사람들에 대한 報 願을 행함. (두연이 연왕에게 강위대의 딸을 주달해 그녀를 부실로 삼고, 위진사는 산동 자사를 제수받고, 황룡사엔 금은 일만 냥과 채단 백 필을 보내 포하고, 중전 왕비는 석승의 변고 소식을 전한 말처 군사를 찾아 황상전에 주달해 병마도총독부를 제수함.)
후기	·		·		·	필사 연도, 필사 동기, 필사자 밝힘.

위의 도표에서 보듯 이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은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이 뒤섞여 있어 먼저 살펴보는 것이 논지 전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시간 설정을 보자.

먼저, 구체적인 것이다. 작품 서두부터 ‘디평 가정연에 한 지성이 이시되’¹⁶⁾로 시작된다. 이후 ‘두홍과 두연¹⁷⁾의 나이와 두연의 나삼 저고리에 수를 놓아

둔 甲子年 삼월 이십 구일, 이씨부인과 위씨부인이 황룡사에서 지낸 18년(SN 2-52), 간간이 1년 지낸 후, 삼 년 거상, 열 달, 세 달' 하는 것 등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석승이 7~8년 병권을 쥐고 있다가 찬역을 도모(SN 2-26)하는 과정과 두홍 가족이 이산되어 고난을 받는 시기가 일치하고, 두 부인이 이산되어 황룡사에 지내다가 뒤에 두연을 만날 때 이씨부인이 56세, 위씨부인이 34세라 하는 것¹⁸⁾ 등은 작품 내적 시간 계산이 매우 치밀하다.

다음,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한 것이다. 예컨대 '이 때, 이러구러, 여러 날 만에, 모월 모일' 등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우리 고소설의 관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 단순 오류가 보인다. 작품 서두에 홍을 소개하면서 '일지 아달을 두니 일흠은 홍이라. 나이 팔세라.'¹⁹⁾해 놓고, 이후 두경열이 백노섬에 종신 안치된 후에도 '이러구로 홍의 나히 팔세라.'²⁰⁾라 한 것은 문맥상 잘못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작품 내적 시간 오류이다. 두홍이 14세에 위씨와 결혼하여 아들 두연을 낳고, 세 달만에 부친의 존망을 알기 위해 백노섬으로 길을 떠난다. 그 뒤, 두 부인은 석승의 위협을 받고 강에 투신하면서 두연의 나삼 저고리에 '갑자년 삼월 이십 구일'을 수놓아 두었는데 이것을 근거로 시간을 유추할 수 있다. 작품 서두 가정년에 비추어 볼 때 갑자년은 세종 43년(1564)으로 가정제 말엽이다. 이 때의 중국 사정은 황제의 도교 심취로 인한 정치의 문란, 北虜南倭가 창궐하고 역적들이 들끓는 등 외적과 내적이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시기²¹⁾이지만, 문면에는 가정 재위 40여 년 동안 황제의 성덕으로 태평성대를 누

16) <두홍전>, 427쪽.

17) 두연의 성명은 '두유애→두우연→두연'으로 바뀐다. 이하 '두연'으로 통일한다.

18) 위씨부인이 두홍과 혼인할 때 나이가 15세이고, 두홍을 낳고 세 달 만에 이씨부인과 강에 투신하여 살아나 황룡사에서 기거한 기간이 18년이면 이 나이는 맞다. 또한 두홍이 18세가 되어 과거에 급제하고, 위국 청병 대원수로 출전하여 북로군을 대파하고 입공하는 것(SN 2-46~2-50)이나, 이씨부인과 위씨부인이 석승의 환을 피해 강에 투신하고 용화사에서 18년을 지낸 후 재회하는 기간은 일치한다.

19) <두홍전>, 427쪽.

20) <두홍전>, 434쪽.

21) 김희영 편저, 『이야기 중국사』 3, 청아출판사, 2003(개정14쇄), 144~156쪽 참조.

렸다고 되어 있다.²²⁾ 이것은 작가가 중국 역사의 사실을 정면으로 다루고자 한 것보다 작가 당대의 현실, 곧 현종 전후의 삼정문란, 이양선의 침몰 등 內憂外患²³⁾을 우의하는 가운데 나온 역사적 오류가 아닌가 한다. 이렇게 보면 흔히 영웅소설의 시대적 성격을 당쟁이나 북벌론, 아니면 가문(가정) 혹은 國事라는 단독 문제를 형상화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의 전체 스토리 시간은 두홍의 나이 7세부터 두연이 복로를 정벌하고 온 가족이 재회하기까지인데, 이것을 서기로 유추해 보면 1556년~1581년이 된다. 따라서 스토리 시간은 약 26년이 된다. 그런데 가정제는 1522년에 즉위하여 1566년에 췌했는데 세종은 穆宗(1567년~1572년), 神宗(1573년~1619년)으로 禪位되지 않고, 여전히 등장하여 주요인물과 관계를 형성하며 시퀀스를 이룬다. 이 또한 작품 내적 시간 구성을 등한시한 작가의 문학적 오류가 아닌가 생각된다.

둘째, 공간 설정을 보자.

이 작품은 주로 중국을 무대로 하고 있다. 이 중, ‘황성, 장안, 산둥, 절강, 연국’ 등은 사실적인 지명인 반면, ‘백노섬, 사해, 용궁’ 등은 허구적인 지명이다. 이러한 두 성격의 지명 공존은 우리 고소설에 관습처럼 나타나 서사 공간을 확대하지만, 특히 <두홍전>은 <홍길동전> <전우치전> <최고운전> <신유복전> 등과 같이 시종 주인공이 공간을 찾아 떠나는 과정으로 배경 우위보다 인물 우위²⁴⁾에 서 있다. 이것은 이 <두홍전>의 주요인물들이 서로 헤어진 가족을 찾아 떠나는 탐색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이 작품의 전체 스토리 시간²⁵⁾은 약 26년 경이고, 공간 이동은 중국 황성, 산둥, 절강땅, 연국 등이다. 그리고 서술 시간²⁶⁾은 도표

22) ‘황제 직위 사십연 후의 무일사 가관이요 (...) 황제 직위 사십 연의 성덕이 거룩하사 철이 말이 사히 빅성이 티평하여 천세만세를 불너잇고.’ (<두홍전>, 493쪽, 497쪽)

23) 현종 재위(1834. 11~1849.7) 때는 金·趙 兩外戚間의 대립으로 조선 왕조는 그 말적 양상에 한 걸음 다가선 듯한 느낌을 주는 암담한 사건만이 연속되었다. 진단학회, 『한국사-근세후기편』, 을유문화사, 1978(15판), 345~349쪽 참조.

24) 신대수, 『하층 영웅소설의 역사적 성격』, 아세아문화사, 1995, 458~467쪽.

25) 스토리 시간은 ‘여러 해, 다시 세월을 보냄’ 등 추상적인 요소가 많아 정확히 계산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전체 스토리 시간 약 26년 안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서사까지의 스토리 시간을 유추했음을 밝힌다. 백분율(%) 또한 마찬가지이다.

에서 보듯 150면(약 150분)이다. 이것을 구성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단 부분이다. 공간은 ‘명 황성, 장안’ 등이고, 스토리 시간 약 1년에 서술 시간은 약 6.9면(6분 54초)[3.85% : 4.60%]으로 감속된다. 이를 행위별로 요약하면 ‘두경열의 가문 및 가족 소개-석승의 모함으로 백노섬 유배-가족과의 이별’ 등이다. 이 중, 석승의 모함 서사(SN 1-2)와 가족 이별(SN 1-3) 서사는 서술 시간이 약 5.4면에 이를 정도로 길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작품 전체 서사의 추동력이 될 주요인물들의 고난의 예비와 행위의 지향점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둘째, 전개 부분이다. 공간은 ‘장안, 절강, 오림’ 등이고, 스토리 시간 약 25년에 서술 시간은 140.9면(140분 54초)[96.15% : 93.93%]이다. 이 부분의 비율은 서로 비슷하게 나타나 거의 ‘장면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성격이 다르다.

먼저, 전개 1의 공간은 ‘장안→산동→남대해→동정호→백노섬→위국→절강’ 등으로 전개 2와 같이 주요인물들의 활동 영역이 광활하게 펼쳐진다. 스토리 시간 약 9년에 서술 시간은 81.8면(81분 48초)[34.61% : 54.53%]으로 감속된다. 이를 행위별로 요약하면 두홍의 ‘성장-혼인-부친 찾기-고난-구출-재회-복수-입공-불완전한 행복’이라는 서사축 (SN 2-1~2-14, 2-29~2-34)과 이씨부인과 위씨부인, 시비 도섭의 ‘避禍-고난’이라는 서사축 (SN 2-15~2-25)이 교직되어 있다. 이 중, 두홍의 고난은 수중계 청룡녀의 도움을 받아 부친과 재회하고, 나아가 부친과 집안의 원수인 석승을 철저하게 복수함으로써 서사의 한 축이 일단락된다. 그러나 두 부인과 시비 도섭, 두연의 삶은 24.1면(24분 6초)을 차지할 정도로 길어져 이들에게 심한 고난을 예비한다.

다음, 전개 2의 공간은 ‘절강→사해 팔방→황성→장안→연국→무성→황룡사→오림’ 등이다. 스토리 시간 18년에, 서술 시간은 59.1면(59분 6초)[69.23% : 39.40%]으로 가속된다. 이를 행위별로 요약하면 두연의 ‘성장-고난-구출-정혼-고난-구출-입공-혼인-완전한 행복²⁷⁾’이라는 두연의 서사축(SN 2-35~2-51,

26) <두홍전>의 서술 시간은 사람마다 다소 다르겠지만, 1면 당 약 1분 걸린다. 전체 서술 시간 150면(약 150분) 안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서사까지의 서술 시간을 계산한 것이다. 백분율(%) 또한 마찬가지이다.

27) 오랜 가족 이산의 고통 끝에 재회하는 것이 과연 완전한 행복인가 하는 문제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다만 <두홍전>에서의 완전한 행복은 두홍이 연국의 왕이

2-57~2-59)과 이씨부인과 위씨부인의 ‘고난-극복-완전한 행복’이라는 서사축(SN 2-52~2-53, 2-55, 2-58~59)이 교직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두연이 고난 끝에 입공하여 후일 전가족이 만날 수 있는 필연성을 제공한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가속되고 있지만, 서사의 집중도로 볼 때 감속된다. 예컨대 두연의 성장 과정 15년은 생략되고, 영웅담(SN 2-39~2-51)이 23면(약 23분)에 길어진 점이나, 이씨부인과 위씨부인의 18년 동안의 황룡사 생활은 생략²⁸⁾되고, 이들의 이산담(SN 2-52)이 약 13.8면(약 13분 48초)에 나타나는 장면을 볼 때 그러하다.

셋째, 결말과 후기 부분이다. 공간은 ‘연국’이고, 스토리 시간 약 1일에 서술 시간은 약 2.2면(2분 12초)[0.01% : 1.47%]으로 감속된다. 이를 행위별로 요약하면 두홍의 온 가족이 재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보은하는 것과 필사자의 後記가 간략히 제시되어 있다.

요컨대 <두홍전>은 ‘두경열-두홍-두연’ 등 3대로 이어지는 주요인물들의 행위 중, 두홍과 두연은 개인적 고난에 서술 시간이 가속되는 반면, 국가적 시련엔 감속되는 경향이 있고, 이씨부인과 위씨부인은 개인적 고난에 더욱 감속되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이는 두홍과 두연이 ‘영웅담’에 이씨부인과 위씨부인은 ‘이산담’에 서사가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간은 주요인물들이 미지의 세계에 자신을 企投하며 끊임없이 자신과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場으로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끈다.

2. 영웅담과 이산담의 합일 구조

<두홍전>은 시퀀스 분석을 통해 보듯 3대에 걸친 서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되고, 두경열이 태상왕, 두연이 왕세자가 되는 등 온 가족이 최상의 신분 상승을 이룬다는 점에서 그러할 뿐이다. 일반적으로 오랜 가족 이산 후의 재회는 삶의 불가역성이라는 속성 때문에 비극성을 내포한다. 줄고, 『조선조 포로소셜 연구』, 동의대 박사학위논문, 2003 참조.

28) 이씨부인과 위씨부인의 황룡사 생활은 생략되어 있지만, 이들이 이곳에서 겪었을 18년 동안의 ‘체감시간’은 아마도 평생의 시간으로 느껴질 만큼 긴 것이었을 것이다. ‘체감시간’에 대해서는 엘런 라이트맨, 권국성 옮김, 『아인슈타인의 꿈』, 예하, 2001, 21~24쪽 참조.

지만, 흔히 1대의 자녀들의 갈등 관계 중재, 2대의 서사 진행 주도, 3대의 미미한 등장으로 나타나는 삼대록 소설²⁹⁾이 아니다. 왜냐하면 <두홍전>의 1대 두경열은 자신의 유배로 인해 2대 두홍, 3대 두연은 물론, 그의 처 이씨와 자부 위씨에게 고난을 부여하는(가족이 이산되는)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후 서사의 진행은 두홍과 두연, 이씨부인과 위씨부인을 중심으로 주도된다. 먼저 이들의 삶을 중심으로 서사 진행을 살펴보자.

먼저, 두홍과 두연은 신화적 존재와 같은 영웅의 활약상을 보인다. 흔히 '영웅의 일생'은 '① 고귀한 혈통, ② 비정상적인 孕胎나 출생, ③ 범인과는 다른 탁월한 능력, ④ 어려서 棄兒가 되어 죽을 고비에 이름, ⑤ 救出·양육자를 만나서 죽을 고비에서 벗어남, ⑥ 자라서 다시 위기에 부딪힘, ⑦ 위기를 투쟁으로 극복해서 승리자가 되는 것'³⁰⁾이다. 이에 이 두 인물을 위의 구조 속에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두홍

- ① 문벌이 갑작인 두승상과 전승상 중언의 딸인 이씨부인의 아들
- ② ×
- ③ 재자파인으로 영웅지기임.
- ④ 부친은 석승의 모함으로 정배되고, 어머니는 자신과 유리 결식함.
석승 무리의 위해
- ⑤ 부친을 찾지 못해 시름에 빠져 있을 때, 청룡녀로부터 부친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음.
- ⑥ 석승의 무리가 찬역함.
- ⑦ 청룡녀의 지교를 이용해 석승의 난을 평정하고 자신은 연왕이 되고, 부친은 태상왕이 됨.

2. 두연

- ① 두홍의 아들

29) 조용호, 『삼대록 소설의 인물구성』, 『고소설연구』 제2집, 한국고소설학회, 1996, 215~219쪽.

30)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94(초판 11쇄), 288~289쪽.

- ② ×
- ③ 재자과인임.
- ④ 조부 정배, 부친과 생이별. 석승의 위해로 어머니는 강물에 투신함.
석승 무리의 위해로 시비 도섭에 업혀 도망감.
- ⑤ 시비 도섭에 의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남.
- ⑥ 복로가 위국 구주를 침략함.
- ⑦ 청룡녀의 증여물과 술법을 이용해 복로의 항복을 받아내고 연국의 세자로 冊封됨.

여기서 보면 두홍과 두연은 ② ‘비정상적인 잉태나 출생’을 제외하곤 영웅성을 획득한 인물이라 <두홍전>은 일단 영웅소설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러나 영웅소설이 신화의 구조를 계승했다라도 소설이 갖는 복잡다단한 장르의 특성상 구조상 변모가 일어난다. 그래서 기존연구는 영웅소설화의 과정을 재구조화시키는 쪽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예컨대 ‘① 주인공의 출생, ② 주인공의 시련, ③ 시련의 극복, ④ 국가적인 시련, ⑤ 국가적인 시련의 극복, ⑥ 부귀영화, ⑦ 주인공의 사망’ 등과 같이 주인공의 시련과 국가적인 시련으로 구분하여 제시³¹⁾, ‘탄생-정혼-고난-피화-구출-정혼-고난-수학-입공-복수-재회-혼인-부귀영화-죽음’ 등 단락 전개를 더욱 세분화한 것³²⁾, ‘① 고귀한 혈통, ② 어려서의 고난, ③ 구원자를 만나 영웅 능력을 획득, ④ 다시 고난을 겪음, ⑤ 탁월한 능력으로 고난을 극복, ⑥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자가 됨, ⑦ 부귀영화를 누리고 승천’ 등과 같이 결말 부분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승천함을 첨가하는 것³³⁾ 등이 그것이다. 본고도 <두홍전>의 온전한 구조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연구의 성과를 받아들여 단락 전개를 더욱 세밀하게 나누어 살펴피되, 영웅성이 없는 다른 주요인물들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1) 민궁기, 『군담소설의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80, 9~10쪽.
 32) 임성래, 『영웅소설의 유형 연구』, 태학사, 1990, 31쪽.
 33) 안기수, 『영웅소설의 구성원리와 욕망의 양상』, 『국어국문학』 117, 국어국문학회, 1996, 257쪽.

단락 인물	출생			1차 고난-극복					2차 고난-극복							승리					
	귀한혈통	출생	성장	개인고난	국가고난	정혼	혼인	피화	구원	국가고난	개인고난	수학	정혼	지교	입공	복수	재회	혼인	보은	부귀영화	죽음승천
두경열	○	×	×	○	×	×	×	×	○	○	×	×	×	×	×	×	○	×	○	×	×
두홍	○	×	○	○	×	×	○	○	○	◎	○	×	×	○	○	○	○	×	○	×	×
두연	○	×	○	○	×	×	×	○	○	◎	○	×	○	○	○	×	○	○	○	×	×
이씨부인	○	×	×	◎	×	×	×	○	○	×	×	×	×	△	×	×	○	×	○	×	×
위씨부인	○	×	○	◎	×	×	○	○	○	×	×	×	×	△	×	×	○	×	○	×	×

(◎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 ○ : 보통의 경우, △ : 약하게 나타나는 경우, × : 나타나지 않는 경우)

위의 도표에서 보듯 두홍과 두연이 개인과 국가의 고난을 동시에 극복하는 영웅의 일생이라면, 서사의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씨부인과 위씨부인은 국가의 고난보다는 개인의 고난과 극복이 부각되어 있어 영웅의 일생 구조와는 거리가 있다. 다만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첫째, 개인 고난(가족 이산)은 주요인물들 모두에게 나타나지만, 주로 두 부인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국가 고난(亂臣逆賊의 모반)은 두홍과 두연에게 강하게 나타나는 점, 둘째, 고난 극복은 두 부인의 가족재회 의지와 두홍과 두연의 입공 의지가 교차하면서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마땅히 결말을 지연시키면서 독자에게 긴장감과 흥미를 준다.

이렇게 볼 때, <두홍전>은 영웅담과 이산담이 합일되는 구조의 영웅소설이다. 이것은 기존에 보아 왔던 영웅소설의 또다른 변모라고 하겠다. 그 근거를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홍전>엔 영웅소설에 흔히 보이는 ‘祈子 발원-晩得子, 천상-謫降, 정혼-혼사장애, 수학-능력 획득, 부귀영화-죽음 혹은 승천’ 등이 없다. 둘째, 영웅소설에서 수중계는 대개 천상계의 지시를 받지만, <두홍전>엔 그런 것은 없고 오히려 지상계와 현실에서 공존하며 서사를 진행한다. 이는 수중계가 천상 옥황상제의 권하에서 벗어났다기보다는 후술하겠지만 당

시 독자들의 심리 및 물의 상징성과 연관성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셋째, 주요 인물들의 삶의 지향은 모두 가족 재회 의지에 쏠려 있지만, 특히 두홍과 두연은 영웅적 활약상을 통해서, 두 부인은 인간적 열정을 통해서 실현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다. 곧 두 부인이 위국 청병 대원수에게 원정을 올리려 가는 장면과 두홍, 두연의 입공담이 각각 13.8면 : 11.2면 : 17.5면에 뒹군하게 드러나는 것만 봐도 그러하다.

물론 영웅소설은 가족 이산과 재회의 모티프가 고난과 극복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영웅소설에 등장하는 이러한 모티프는 대개 영웅담 속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컨대 이러한 모티프가 <조웅전>의 경우는 조웅의 군공과 애정을 중시하는 결연관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³⁴⁾이고, <유충렬전>의 경우는 유충렬이 천상에서 대립했던 정한담과 지상계에서의 직접 대립을 위한 준비³⁵⁾인 것이지 절절한 이산담은 아닌 것이다. 반면 <두홍전>은 3대에 걸친 20여 년의 이산담과 두홍과 두연의 영웅담이 서사 경쟁하듯 유기적 상관성을 가지며 합일된다. 이러한 구조적 성격은 영웅담을 통해 비장감을, 이산담을 통해 초조감을 자아내면서 독자에게 희비극적 카타르시스(catharsis)를 느끼게 한다.

IV. 의미 지향: 倫紀실천을 통한 가문회복과 이상적 국가이념 구현

앞서 <두홍전>은 두홍과 두연의 영웅담과 두 부인의 이산담이 합일된 구조라고 밝혔다. 주제 의식으로 보면 이 작품 또한 <김홍전> <양풍전> <유충렬전> <조웅전> 등과 같이 인륜을 수호하는 영웅소설의 궤에 들 수 있다.³⁶⁾ 인륜 수호는 당대의 이념적 가치인 ‘忠孝烈’의 유교 이념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그

34) 심경호, 『조웅전』, 김진세 편,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7(1판 2쇄), 382~383쪽 참조.

35) 임치균, 『유충렬전』, 김진세 편, 앞의 책, 400쪽 참조.

36) 임성래, 앞의 책, 60~70쪽 참조.

러나 위의 네 작품은 김홍, 양풍, 유충렬, 조웅의 ‘탄생-고난-피화-수확-입공-복수-혼인-부귀영화-죽음’에 이르는 단독적 영웅의 활동이 초점화되어 있어 ‘충’의 이념이 부각된 반면, ‘효열’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가족 이산의 절절한 사연은 <두홍전>에 비해 약화되어 있다. 물론 <두홍전>의 필사 동기가 ‘잠심 부여 잡고 숙독하면 충성하기 기이 비을일 맛하미’³⁷⁾라 하여 ‘충’의 유교 이념에 경도된, 곧 영웅담을 부각시킨 인상도 없지 않다. 하지만 작가의 의도와 관계없이 이 작품은 ‘충효열’의 유교 이념을 잘 드러내는 ‘윤기’의 코드(Code)로 읽을 때, 그 의미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

먼저, 두경열과 두홍의 경우다.

1대 두경열은 명문 가문의 자제로서 어떠한 간신배와도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충의 화신’³⁸⁾이다. 그러나 두경열의 이러한 ‘충’은 석승이 사주한 한림학사 양소희의 참소³⁹⁾에 의해 산산이 부서져 결국 백노섬에 종신 안치되는 비운을 겪는다. 하루아침에 청렴강직한 명문 거족이 가장된 ‘충’에 의해 몰락되는 아이로 니컬(ironical)한 현상이다. 이것은 국가의 윤기가 바로 서지 못한데서 나온 결과로 이후 2대인 두홍의 삶의 방식을 결정짓는 동인이 된다. 곧 두홍은 올바른 윤기를 되찾기 위해 두연을 얻은 지 3개월 만에 백노섬에 안치된 ‘부친 찾기’를 감행한다. 이것은 자식된 도리로서의 ‘효’이며, 나아가 모함한 석승의 무리에 대해 복수의식(SN 1-3, 2-10)⁴⁰⁾을 가짐으로써 국가에 ‘충’을 다하려는 의지이다.

37) <두홍전>, 576쪽.

38) ‘경열이 청렴강직하여 승상위에 거하되 빅만금을 가산에 보티지 안이하고 국사에 첩보하니 이름으로 가난 삼식 양도가 구차하다. (...) 석승이 두승상의 충성을 혐미하고 승상을 희코저하되’ (<두홍전>, 427~428쪽)

39) ‘소에 왈 (...) 진충극역니 위국녹지신어언을 승상 두경열 본심이 간교하고 형사가 참납하여 보국지심은 외관니심이라. 무명지 난의 서천 구도를 업시고 빅성을 무슈이 죽여사오니 이난 음난흔 죄라, 무도흔 경열을 니입지 몬하미 사적이 거이 위티하옵던니(...)’ (<두홍전>, 429쪽)

40) 이것은 두홍이 부친과 이별할 때와 백노섬으로 부친을 찾아 나설 때 장인과 하직하면서 말한 곳에 잘 나타난다. 차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사람은 오름을 직히오미 보국하기와 보친하난거시 썸 한 일이라. (...) 남의 자식되여 부친의 원을 썸칠기오나 나히 연천하니 옥사무지라.’ (<두홍전>, 432쪽)이나, ‘석승의 우함을 입어 부친이 빅노섬으로 정비하시고 모자 도망하여 사히 팔방으로 유리호와 이 고더 와서 악장의 은혜로 입어 일신은 평안하나 부친의 소식을 몰나 슈심으로 지니옵던니(...)’ (<두홍전>, 454쪽)

이러한 두홍의 윤기실현 의지는 후술하겠지만 수중계의 지교와 증여물(갑옷, 갑주, 용마, 수정검)을 통해 부친과 재회하고 나아가 內賊인 석승 무리들을 징치함으로써⁴¹⁾ 신분 상승(SN 2-32~2-34)까지 한다. 이러한 두홍의 행위는 안으로는 가문을 회복하고 밖으로는 이상적 국가이념을 실현하는 모습으로 귀결된다.

다음, 두연의 경우다.

3대인 두연은 석승의 환 때 시비 도섬에 업혀 피화하던 중, 절강의 商船 주인 이재춘에게 납치되어 길러진다. 이재춘 부부가 죽으면서 두연에게 윤기(출생의 비밀을 포함한 가족 찾기)를 찾으라며 신물인 나삼 저고리를 준다. 이를 계기로 두연의 삶의 지향점은 윤기를 찾기 위해 사해 팔방을 방황한다. 이후 문필이 뛰어난 두연은 우여곡절 끝에 장원급제하고 한림학사, 이부시랑까지 신분이 상승되지만, 마음 한 편은 항상 부모를 찾고자 하는 의지가 문면 곳곳에 배어 있다. 이를테면 두연이 위국 청병 대원수가 되었을 때 ‘황상의 여천여히지 은을 만분지 일이나 갑풀거시오, 타국 왕니지간의 형여 부모 소식 알가혀여 군사을 호영’⁴²⁾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후 두연은 두홍에게 전수 받은 수중계의 술법과 증여물을 통해 외적인 복로를 처부순다. 그리고는 호장에게 향서를 받으면서 다시는 윤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타이른 뒤 살려준다.⁴³⁾ 이어 훗날 가족 재회를 통해 온전한 윤기를 실현할 계기가 될 두 부인의 원정을 받고 그들을 연국으로 보내는 개가를 올린다. 이 또한 윤기실현을 통해 가문을 회복하고 이상적 국가이념을 실현하려는 의지의 발로로 해석된다.

또, 이씨부인과 위씨부인의 경우다.

앞서 보았듯 두 부인은 이산담에 경사되어 있다. 가족 이산의 당사자는 지금

41) 두홍의 복수는 매우 철저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윤기를 저버린 자의 말로가 어 떠한가를 일벌백계로 보여 주는 모습이다. ‘두홍이 (...) 석승을 자바니려 직시 쥐기여 후다가 철망의 어어 남성문의 다라신니 (...) (황상이-필자) 네 갓탄 만고 역적놈을 물러 썰디없다 능지처참하라 하신디 (...) 석승의 구족을 다 멀히고 제 처난 말이 박게 중신토록 경비하고(...)’ (<두홍전>, 510쪽, 512쪽)

42) <두홍전>, 533쪽.

43) ‘원슈 장디의 안자 호장을 니립혀여 결곤삼십도 후의 다시 청혀여 당상의 안치고 일너 왈, 그더 엇지 망영된 일을 생각혀여노, 다시단 그런 마음을 먹지 마라. 호장이 부복사죄하고 도라간이라.’ (<두홍전>, 543쪽)

한 상실감으로 심적 공황 상태에 빠지지만, 역으로 삶에 대한 끝없는 의지를 기투할 수 있는 삶의 동인(motivation)이 되기도 한다. 두 부인도 예외가 아니다. 곧 이들은 석승의 환 때 자신들이 견지한 지고의 가치이면서 당대 유교 이념인 ‘열’을 고수하기 위해 강에 투신한다. 투신은 삶의 포기라기보다는 ‘열’을 고수하여 가문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윤기의 발로인 바, 오히려 삶에의 강한 욕구로 읽을 수 있다. 마침 두 부인은 수중계의 초월적인 힘에 의해 생명을 구하고, 지교에 따라 황룡사에 들어가 삭발위승하고 18년 동안 눈물의 세월을 보내던 중, 우여곡절 끝에 그리던 가족과 재회한다. 물론 영웅소설의 결말은 이산했던 가족들이 재회하여 부귀와 영화를 일세에 누려 나가는 대단원으로서의 행복담을 결구해 놓은 것⁴⁴⁾이 보편적이지만, 주로 과정 서사로서의 이산담은 결여되거나 약화되어 있다. 반면 <두홍전>은 명문가였던 주요인물들의 이산 체험이 꺾진하게 나타나는데 무엇보다 이들이 하층민의 삶으로 전락⁴⁵⁾해 끊임없이 가족 재회를 지향하는 과정 서사가 있다. 이러한 과정 서사의 중심에 두 부인이 있는데, 이들은 가문의 회복이 결국 국가 윤기의 기초이며 나아가 이상적 국가이념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면 두홍과 두연이 주로 內賊과 外賊을 물리치는 영웅담을 통해 국가의 윤기를 바로 잡고 가문을 회복하려 했다면, 두 부인은 ‘열’을 고수하며 가족 재회를 열망하는 이산담을 통해 가문을 회복하고 나아가 국가의 윤기를 바로 세우려는 욕망이 서사의 이면에 깔려 있다. 따라서 <두홍전>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의미는 가문의 재창달과 이상적 국가이념의 구현은 윤기실현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것은 이 작품이 중국의 가정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작가가 현종 전후의 내외위환⁴⁶⁾을 우의한 결과로, 결국 가

44) 김기동, 『한국고소설연구』, 교학연구사, 1984, 299쪽.

45) ‘춘」 기결하며 초형 로숙하여 발연 만의 강호 산앵 짜의 달달은 이 (….) 동중의 초막 한기를 돈 돈 양 주고 사서 두리 의지 하던니 (….) 이써 두홍은 모친을 모시고 성익가 극난하여 나지면 나무하고 밤이면 독서하고 그 모친은 혹침자도 하며 방의 품도 드러 큰」 연명하니 그정상이 이 엇지 다 성언하리요.’ (<두홍전>, 436~437쪽) <두홍전>은 영웅의 삶이 고난 속에 ‘미친한 삶’을 체험하는 작품, 곧 <장경전> <소대성전> <장풍운전> 등과 의미를 비교해 논할 수 있다.

46) 현종 전후, 곧 19세기 중엽의 조선 사회는 전통체제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대외

정(가문), 사회, 국가의 온전함은 윤기실현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작가의 서사적 전략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수중계 청룡녀의 서사적 기능이다. 두홍과 두연의 영웅성 획득은 물론 온 가족의 재회하는 데 결정적 힘을 준 것은 청룡녀이다. 청룡녀의 등장은 두홍이 간사한 남해 용자의 첩인 서해 용녀를 응징한 데 대한 본처인 청룡녀의 보은의 형식이기 때문에 소설 구성으로 볼 때는 필연적이다. 그래서인지 청룡녀는 주요인물에 나타나 지교하거나 증여물을 줄 때, 여느 영웅소설이 보여주는 現夢의 방식⁴⁷⁾이 아니라 바로 현실적 공간에서 움직이는 인물로 나타난다. 이것은 수중계의 비운기는 지상계의 힘을 빌려 용국의 위상을 세우고, 지상계의 비운기는 수중계의 힘을 빌려 해결한다는 점에서 낭만적 구성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주요인물들이 활동하는 지상계와 수중계의 고난의 원인은 모두 ‘모함’이라는 비운기를 문제를 삼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것은 주요인물들의 결핍을 현실의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을 다른 세계의 힘을 빌려서라도 해결하려는 당시 독자를 의식한 듯하다. 따라서 수중계의 초경험적 세계의 개입은 비단 비현실적 요소로 읽히기보다는 무거운 주제에 대한 긴장과 이완, 현실적 고난에 대한 보상 심리, 흥미적 요소 등 작품 전개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또한 수중계의 ‘물’을 ‘재생, 부활, 정화’의 상징⁴⁸⁾으로 보면, 석승에 의해 더럽혀진 두경열의 가문을 정화, 부활함은 물론 나아가 이상적인 국가이념을 실현하려는 작가의식의 발로라고 생각된다.

적으로는 西勢東漸을 계기로 한 서구 열강의 도전, 곧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쳐 근대 체제를 갖춘 異質文化圈의 도전을 받았고, 대내적으로는 洪景來亂 이래로 거듭된 民亂에 의한 도전 곧 봉건적 수탈과 신분제도의 폐기 등 체제 변혁적 요구가 내포된 民衆世界의 도전을 받은 시기로, 이런 대내외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爲政斥邪運動이 전개되었다. 유영렬, 『斥邪運動과 開化運動』, 한국사연구회 편, 『한국사연구집』, 1987(초판 제2쇄), 411쪽.

47) <두홍전>에 나타난 석승과 이씨부인, 두연, 강위대 딸의 꿈은 수중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SN 2-16, 2-41~42, 2-52 참조)

48)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2, 22쪽.

V. 맺음말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간략히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홍전>은 국문 유일 필사본 소설로 한문 표제인 <頭紅傳>과는 별개의 작품이지만, 이 두 작품이 같은 필사자에 의해 필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필사 연도는 후기에 ‘임인년 시월 이십 오일’로 적혀 있는데, 임인년은 <頭紅傳>의 내용과 관련시켜 볼 때 1902년이였다. 필사자는 ‘소차철, 홍식일’로 모두 경상도 출신임을 확인하였고, 고사와 한문투의 문장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구사한 것으로 보아 중급 이상의 식자층이면서 고소설에 조예가 깊은 사람임을 유추할 수 있다.

둘째, <두홍전>의 시퀀스 분석을 통해 볼 때, ‘두경열-두홍-두연’ 등 3代로 이어지는 주요인물들의 행위 중, 두홍과 두연은 개인적 고난에 서술 시간이 가속되는 반면, 국가적 시련엔 감속되는 경향이 있고, 이씨부인과 위씨부인은 개인적 고난에 더욱 감속되어 나타난다. 이것은 두홍과 두연이 ‘영웅담’에 이씨부인과 위씨부인은 ‘이산담’에 서사가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공간은 주요인물들이 미지의 세계에 자신을 기투하며 끊임없이 자신과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장으로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끈다. 작품 전체의 구조는 영웅담과 이산담이 합일된 모습이다. 이러한 구조적 성격은 영웅담을 통해 비장감을, 이산담을 통해 초조감을 자아내면서 독자에게 희비극적 카타르시스(catharsis)를 느끼게 한다.

셋째, <두홍전>의 의미 지향은 ‘윤기실현을 통한 가문회복과 이상적 국가이념 구현’으로 파악하였다. 이것은 이 작품이 중국의 가정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작가가 현종 전후의 내우외환을 우의한 결과로, 결국 가정(가문), 사회, 국가의 온전함은 윤기실현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작가의 서사적 전략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더 깊은 고민과 논의가 병행되어야 하리라 본다.

이상에서 보듯 <두홍전>은 현재까지 이본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많이 읽히지 않은 작품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해 <두홍전>의 소설적 성격이 다음과 같이 규명된 데 대해 연구사적 의의를 두고 싶다. 첫째, 영

응답과 이산담이 대등하게 합일되는 구조로도 영웅소설이 변모되었다는 점, 둘째, ‘윤기’의 윤리적 가치를 제고했다는 점, 셋째, 지상계와 수중계의 세계관을 현실에 공존시켜 독자의 흥미를 끈 점 등이다.

그러나 논의에 대한 논리적 비약이 없지 않다. 앞으로 다른 영웅소설과의 관계, 영웅소설이면서 이산담이 껴진하게 전개되는 <金允傳>⁴⁹⁾류의 소설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될 때, 이 작품은 우리 고소설사에 더욱 정확하게 자리매김될 수 있으리라 본다.

주제어 : 시퀀스, 영웅담, 이산담, 합일구조, 윤기(倫紀)

49) 이상택 편, 『海外 蒐佚本 한국고소설총서』6, 태학사, 1998, 3~484쪽.

참고문헌

- 김광순 소장, 필사본 한국고소설전집 『한국고소설전집』, 박이정, 1998.
- 김기동, 『한국고소설연구』, 교학연구사, 1984.
- 김동욱 소장본, <두홍전>, <頭紅傳> 『필사본 고소설 자료 총서』7, 보경문화사, 1991.
- 김진규, 『조선조 포로소설 연구』, 동의대 박사학위논문, 2003.
- 김희영 편저, 『이야기 중국사』3, 청아출판사, 2003(개정4쇄).
- 민궁기, 『군담소설의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80.
- 박일용, 『영웅소설의 하위 유형의 이념 지향과 미학적 특징』,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변주』, 월인, 2003.
- 백두현, 『영남 문헌어의 음운사 연구』, 국어학회, 1992.
- 소재영, 『고소설통론』, 이우출판사, 1982.
- 신태수, 『하층 영웅소설의 역사적 성격』, 아세아문화사, 1995.
- 심경호, 『조용전』, 김진세 편,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7(1판 2쇄).
- 안기수, 『영웅소설의 구성원리와 욕망의 양상』, 국어국문학 117, 국어국문학회, 1996.
- 우쾌제, 『고소설 명칭 및 총량의 통계적 고찰』, 『고소설의 저작과 전파』, 아세아문화사, 1995(재판).
- 유영렬, 『斥邪運動과 開化運動』, 한국사연구회 편, 『한국사연구입문』, 1987(초판 제2쇄).
- 이상택 편, 『海外 蒐佚本 한국고소설총서』6, 태학사, 1998.
- 임성래, 『영웅소설의 유형 연구』, 태학사, 1990.
- 임치균, 『유충렬전』, 김진세 편,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7(1판 2쇄).
-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94(초판 11쇄).
- 조용호, 『삼대륙 소설의 인물구성』, 『고소설연구』제2집, 한국고소설학회, 1996.
-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1, 집문당, 1999.
- 조희웅, 『고전소설 줄거리집성』1, 집문당, 2002.
- 진단학회, 『한국사-근세후기편』, 을유문화사, 1978(15판).

-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2.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고소설목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 롤랑 바르트, 『이야기의 구조적분석 입문』, 김치수 편저, 『구조주의와 문학비평』, 홍성사, 1981(2쇄).
- 앨런 라이트맨, 권국성 옮김, 『아인슈타인의 꿈』, 예하, 2001.
- 셜로미드 리몬 케넌, 최상규 역, 『소설의 시학』, 문학과지성사, 1996(7쇄).
- 시모어 채트먼, 김경수 옮김,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민음사, 1999.

<Abstract>

A Study on 'Duhongjeon'

Kim, Jin-Kyu

To summarise discussion so far, of which are as follow.

First, 'DuhongJeon두홍전' was the only transcription in Korean and it was different from 'DuhongJeon頭紅傳', these two works have been confirmed transcribing by the same calligrapher. They were written at the end of 25th October in Im-in-nyeon. However when we thought of the contents 'DuhongJeon頭紅傳', they were written in 1902. The calligrapher were So, cha-chil, Hong, sik-il and they came from Kyung-sang-do province. When we consider they wrote Chinese character somewhat freely, we can analogize they were over intelligent people of middle class and they had a good knowledge of ancient novel.

Secondly, setting of time and space of 'DuhongJeon' were not incorrect so we can analogize them through contexts. They have retrieved flaws of setting with the 'lay the scene' which readers and main characters of works moved to huge space over the long time. Whole structure of works have an appearance which unify heroic stories and separation stories of family.

Thirdly, aim of meaning of DuhongJeon were understood as a recovery of family throughout correct human behaviour of mankind and public order of country and as a materialization of country's idea.

Key Words: sequence, heroic stories, separation stories of family, the structure of heroic novel to unify heroic stories and separation stories of family, human behaviour of mankind and public